

엄마와 정원을 가꾸어요

안녕, 에밀리!
여기 정말 멋지지 않니?

맞아요! 저도
같이 해도 돼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샵은 네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겠구나. 너는
정원의 잡초를 뽑아주겠니?

좋아요!

꽃은 뽑지 않도록
조심하렴. 어떤
것이 잡초인지
보여 줄게.

잡초를 모두 뽑아야 해요?
너무 많아요!

정원을 멋지게 가꾸고
싶다면 잡초를
뽑아야지.



정원을 가꾸는 건
힘들어요.

네 말이 맞아.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꽃을 왜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미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미를 볼 때마다
기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란단다.

마치 그 노래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 기뻐져요
주는 세상을 창조했네."*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괜찮단다. 꽃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꽃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를 돌보고,
지구의 현명한 관리인이 되며,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구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창조",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4쪽.